
 <b>인천광역시</b>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b>인천의꿈</b> <b>대한민국의미래</b>
<b>담당 부서</b> 영유아정책과	<b>배포일자</b> 2023년 2월 23일(목) 총 2매	<b>인cheon의꿈</b> <b>대한민국의미래</b>	
<b>담당 부서</b> 영유아정책과	<b>담당 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정책팀 권혜경 ☎440-2891</li> <li>• 담당자 강범석 ☎440-2893</li> </ul>		
<b>사진(이미지)</b>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b>참고자료</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b>보 도 시 점</b>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보호대상아동 자립위해 희망 전달

- 인천정부지원어린이집연합회, ‘천사캠페인 후원금’ 시에 전달 -  
 -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후원자 1억5천만 원 후원 -

인천광역시는 2월 23일, 시장 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시 정부지원어린이집연합회(회장 허현주)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대상아동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천사캠페인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더 이상 보호 시설에 머물 수 없는 나이가 된 아동들의 사회 진출과 적응을 돕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시와 재단, 연합회가 힘을 모아 추진해 왔다.

특히 연합회 소속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들이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한 결과, 2023년 1월 기준 1,200여명의 후원자를 모집, 약 1억 5천만 원의 연 후원금을 확보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모금된 후원금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

좌(디딤씨앗통장) 적립,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사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유정복 시장은 재단 측으로부터 그간의 추진 경과 보고와 함께 후원금을 전달 받고, 앞으로 캠페인을 더욱 발전시키 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캠페인 추진에 힘써 주신 재단과 연합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며, “비록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온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천사캠페인이 나눔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 관련사진 >

